



## 공공도서관의 도서선정 현황과 문제

글 | 장 덕 현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dchang@pusan.ac.kr

### 1. 들어가며

도서(圖書)는 시대의 얼굴이다. 사회의 다양한 관계와 위치(positioning)로부터 생산된 담론은 출판물을 통해 공유되는데, 도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된 매체일 뿐 아니라 개인이 사회적 담론을 습득하고 체화해 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즉, 정치적, 사회적 견해 표현에 긴요한 학문적 훈련은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면에서 책은 상징(symbol)이며 훈련(discipline)이다. 반면 보다 쉬운 경로로 입수되는 책들도 있다. 즉, 지배적 상징체계로서의 담론과 베스트셀러로 구체화되는 민중들의 통시적 의식은 일치하지 않는다. 도서의 선택에 있어서 대별되는 큰 흐름이 가치론적 입장과 요구론적 입장이라 본다면 전자와 후자의 범주에 드는 지식과 사상의 생애주기(life cycle)는 확연하게 구분된다.

도서의 의도적 집합인 장서는 사회가 도서관을 설치하고 지식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망라적으로 수집, 조직, 보존하여 이용시키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의의를 지닌다. 즉, 도서관 장서는 역사를 이어 전승하는 지적 유산이라는 통시적인 관점과 사회의 모든 사상과 의견, 정보를 수용하고 이들이 공유되도록 한다는 공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장서는 도서관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장서는 한 나라가 지난 세월동안 어떠한 지적, 사상적, 문화적 변화를 겪어 왔는지를 반영하는 역사의 거울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공공도서관의 장서는 정치적, 사상적, 종교적 편견이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공도서관은 한 나라의 지적 자원을 망라적으로 수집·보존하여 그 시대의 모습을 가감 없이 후대에 전달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1930년대에 미국도서관협회(ALA)가 도서관권리선언(Library Bill of Rights)을 통하여 '도서관은 사상과 의견이 자유롭게 교통하는 광장(forum)' 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도서관을 지속적으로 건립하고 소장 장서의 수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성공하려면 도서관 장서의 양적 증가 못지않게 질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요컨대 공공도서관의 장서가 과연 우리사회의 지적 지형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점이 관건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도서선정 현황을 고찰하고 보다 효율적인 도서선정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공공도서관의 구매력 문제

어느 나라에서든 도서의 가장 큰 구매자는 공공도서관이다. 동시에 공공도서관은 출판물의 가격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주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예산이지만 지자체의 관심은 주목받을 수 있는 지역 내 숙원사업들에 주로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이 부각되지 못하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예산은 항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즉, 이용자의 요구는 다양화되고 확대되며, 도서의 가격도 상승하는데 비해 자료구입 예산은 상대적으로 정체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주어진 예산으로 신간도서나 이용자의 희망도서만을 구입하기에도 벅차 다양한 자료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도서관도 많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운영비와 자료구입비의 상승폭을 살펴보면, 2008년을 기점으로 2010년 현재 도서관 운영비 평균 금액은 24%, 전체 자료구입비 평균 금액은 16.1%, 그리고 도서구입비 평균 금액은 14.1% 상승하여 도서관 운영비에 비해 전체 자료구입비와 도서구입비의 상승폭이 낮다. 2010년에 발간된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는 공공도서관 운영비 중 자료구입비를 20~25% 정도의 비율로 구성하는 것을 예산배정의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반면 국내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가 도서관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4.6%, 2009년 14.7%, 2010년 13.7%로 3년 평균 14.3%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주재원 이외에 시·도 차원의 보조금이 자료구입비 명목으로 공공도서관에 지원되고 있지만, 운영주체와 지역별로 편차가 커 자료구입비를 보전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재원 중 자주재원인 ‘시·군·구 예산’의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며, 이와 함께 의존재원인 ‘시·도지원금’과 ‘국고지원금’, 그리고 대안재원인 ‘외부기부금’을 통한 자료구입비 확충도 매우 중요하다.\*

\* 편집자주 :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재원은 그 출처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통해 조달되는 재정재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제외한 경로(재단이나 단체의 지원금 포함)를 통해 조달되는 대안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정재원은 자금출처에 따라 재정주체가 적극적으로 조달하는 자주재원과 다른 곳에서 조달한 자금을 배분받는 의존재원으로 분류된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2010.)

### 3. 공공도서관 자료선정의 전문성 문제

#### 3.1 장서개발정책 미비

도서를 체계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장서개발정책(Collection Development Policy)을 제정하여 공개하는 것이다. 장서개발정책은 도서관에 있어서의 장서개발의 특징과 범주, 우선순위 등을 규정하는 장서관리 업무의 마스터플랜이다. 도서관은 장서개발정책을 통하여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장서의 특성과 강점 및 약점을 파악하고, 장서구성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예산분배의 정통성과 효율을 기할 수 있다.

2010년 말에 이루어진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에서 전국의 545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장서개발정책(또는 지침) 채택 여부를 조사한 결과, 322개관(59.1%)이 장서개발지침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3.2 도서선정 및 구입업무의 전문성 부족

공공도서관에서 도서의 선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사서이지만, 도서구입 계약과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주로 행정직원이며 이들 또한 순환근무를 하고 있어 도서가 여타의 단순한 물품과는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도서가 일반 물품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도서구입과 관련한 계약절차에서도 도서가 가지는 특징이 고려되지 않고 일반 물품 계약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입, 관리되기 때문에 좋은 책을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는 도서관의 기본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 4. 공공도서관에 있어서 도서선정 도구의 문제

#### 4.1 도서선정도구 활용 현황

매년 방대한 규모로 생산되는 출판물의 양과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사서직원 규모를 고려할 때 사서가 출판되는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평가하여 연령별 발달 단계나 정보요구, 나아가 심리적 특성까지 고려하여 ‘상황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선정도구이며 그 대표적인 예가 추천도서리스트나 권장도서리스트들이다.

전국의 535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의 도서선정에 주로 활용되는 선정도구를 조사한 결과, 추천도서목록(20.7%), 희망도서목록(19.8%),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스테디셀러 목록(19.4%), 신문/잡지 등의 서평(15.1%), 권위 있는 문학상/학술상 정보(13.4%) 등의 순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독서관련 블로그나 카페, 관내 교육기관의 추천도서, 대형서점에서 제공하는 서평, 도서관이 자체 제작한 추천도서목록, 자료실 담당 사서의 추천도서, RSS(Rich Site Summary, Really Simple Syndication)를 통한 신간목록,

인터넷 서점의 신간도서목록 등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도서관 장서구성을 위한 핵심장서 리스트와 더불어 규모나 수준별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별·단계별 선정도구가 만들어져야 하며, 아울러 도서관이나 한국도서관협회와 같은 비영리기관에서 책임 있게 작성한 선정도구가 많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신설 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장서(core collection) 리스트 제작에 한국도서관협회 등이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 4.2 선정도구의 문제

출판되는 모든 자료의 실물을 사서가 검토하여 선정한다는 것은 현재의 공공도서관 인력 상황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천도서리스트나 베스트셀러리스트를 선정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리스트가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권장도서 목록에 의존하여 자료를 선정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sup>1)</sup> 베스트셀러 리스트의 문제점<sup>2)</sup>은 차치하더라도, 관련학계에서는 추천도서의 필요성은 증대되는 반면 전문성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성이 반영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도서 목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독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도서목록이 만들어지지 않는 데 있다.

이렇게 추천도서리스트의 신뢰성 문제와 더불어 가장 많은 것이 수용자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권장도서리스트가 독자를 염두에 두고 생산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런데 매체의 성격에 따라서 목표가 되는 독자가 다를 수 있다. 실제로 권장도서리스트를 생산하는 기관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어떤 독자를 위한 리스트인가,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문제는 상업적 목적이나 이데올로기적 편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말 그대로 권위 있는 리스트가 드물다는 것이다. 책 소개에만 급급한 서평이나 권장도서리스트보다는 대중성과 신뢰성을 갖춘 정확한 추천도서리스트가 필요하다. 불편부당한 시선으로 다양한 색깔의 도서를 골고루 다루어야 한다. 두 시간짜리 영화를 보아도 별점을 매기고 경우에 따라 혹평을 하는데 반해 정작 며칠을 읽어야 하는 책에 대한 평은 칭찬일색이다. ‘추천’ 하고 ‘권장’ 만 하지 비평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최근에는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한 도서추천도 확대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어린이 도서를 중심으로 전문가 블로그가 호응을 얻고, 정보통신 환경이 좋아지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독자들의 자발적 서평이

1) 김은하. "권장도서 목록을 버려야 하는 이유." 창비어린이. 2005. 가을.

2) 백원근. "사재기 베스트셀러 파문과 우리 출판의 자화상." 문화예술, 266. 2001: 64-70.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일부 파워블로거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데, 최근에는 출판사나 인터넷 서점에서 서평단을 모집하는 것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렇게 서평이 출판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인터넷에서 그것이 대세가 되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아질 것은 자명하다.

또 최근 한 책 한 도시 운동 등의 독서운동을 통해 권장되는 책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읽을 책을 선정하다 보니 선정도서의 경향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삶을 이어가는 긍정적인 삶의 이야기' 등의 무난한 저작을 선호하는 경향을 지닐 수밖에 없다. 물론 전체 선정도서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도서의 선정과정에서 시민들의 투표를 주로 반영하고, 또 모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 '착한 시민' 일변도의 획일적인 사고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이는 한번 짚어보아야 할 대목인 것 같다.

## 5. 나오며

책은 그 시대가 허용하는 혹은 상상하는 모든 가능성으로 향하는 문이다. 도서관의 장서는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자료들을 최대한 망라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역사적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어떤 독자들은 어떠한 이슈나 주제에 관해 특정의 관점이나 의견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독자들이 애초에 목적인 자료, 혹은 처음 마주친 자료로부터 모든 정보를 얻고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독자들을 유도하는 것이 도서관 장서의 의의이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서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서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에서 도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효율적인 도서구입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도서구입의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다양한 선정도구들을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이용자들이 이러한 목록에 의존해 도서관을 권장도서의 집적소 정도로 여기게 되면 장서개발에 있어서 사서의 전문성은 존재할 곳이 없다. 아울러 독자의 입장에서는 권장도서리스트가 결국 이용자의 지적자유와 읽을 권리(freedom to read)를 저해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sup>3)</sup> 결국 권장도서, 추천도서가 필독서로 인식되면, 선정되지 않은 저작들에 담긴 세상의 많은 지식과 아이디어는 사장된다. 삶과 사유의 다양성은 훼손되며 결국 출판문화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칠 것이다.

한 권의 책을 읽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과, 서점을 찾는 것, 그리고 인터넷 서점에 접속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도서관의 사회적, 역사적 역할을 고려할 때 책의 생산자와 소비자, 저자와 출판사, 독자, 또 서점과 도서관 등 독서를 매개로 한 여러 가지 역할(stake holders) 사이, 그 중간 어디쯤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3) 장덕현, 장서개발에 있어서 지적자유 문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2011: 165-182

권위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권장도서의 역할은 단순히 책 소개에 머물러서 독자 확산에만 목적을 두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바람직한 출판문화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책을 생산하는 사람과 매개하는 사람, 그리고 소비하는 사람이 소통하고 활발히 교류할 때, 비로소 책을 중심으로 한 바람직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❸

#### [참고문헌]

- 김은하. “권장도서 목록을 버려야 하는 이유.” 창비 어린이. 2005. 가을.
- 백원근. “사재기 베스트셀러 파문과 우리 출판의 자화상.” 문화예술, 266. 2001: 64-70.
- 안인자. “국내 어린이 권장도서목록 개발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4): 2009: 31-49.
- 이연옥. “아동 및 청소년도서선정도구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2): 2006: 47-72.
- 장덕현. “장서개발에 있어서 지적자유 의 문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2011: 165-182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이자료 종합목록 개발방안 연구』.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09.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0.